

코로나 추석 속 제주현안 관심

농작물 태풍피해·지역경기 부양책·제2공항 등 화두
 원 지사 대권행보·도지사 3선 도전여부 등도 '입방아'
 연휴기간 확진자 발생 없어 '안전제주' 이미지 부각

올해 추석연휴를 짧게 말한다면 "다행이다"로 요약된다. 추석연휴 다섯 동안, 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제주에선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 이번 연휴기간에 귀성객과 관광객 28만명이 제주를 찾았지만 지역 감염 확산은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오후까지 없었다.

예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을 만든 이번 추석연휴는 아마도 매년 추석이 돌아올 때면 입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예전처럼 1년에 한번 보는 친지나 친구들을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추강스'로 제주를 방문한 입도객은 넘쳐났다.

실제 입도객은 15만8000명으로 지난해 추석연휴의 23만6790명보다 33.3% 줄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도 하루 평균 3만1000명을 넘었다.

여기에 철저한 방역활동과 개인 건강안전수칙이 잘 지켜지면서 '안전제주'의 이미지가 돋보였다. 향후 지역경기 부양의 출발점인 관광객과 이동인구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차례는 집안 대표자들끼리

모여 작은 규모로 지냈고, 일부는 양해를 하지 않고 각자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 사례도 많았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눴다. 특히 연휴 막바지에 나온 미국 대통령 내외의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내용과 우리나라의 K방역, 그리고 제주도의 방역활동까지 대부분 전문가 수준의 입담을 자랑했다.

코로나19와 함께 가장 뜨거운 제주사회의 화두는 단연 제주 제2공항 문제였다. 아직까지 찬반이 뚜렷한 갈등구조 속에 최근 모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 반대 입장이 다소 우세하게 나와 서로의 날선 주장에 불을 지폈다.

현재 국토교통부, 제주도, 도의회 등의 끝장토론을 예고한 상태로 크고 작은 설전이 오갔다. 그동안 토론 주제에서 제외됐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나온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권고한 19개 조건 가운데 항공기 분리간격 축소 등의 4개 주제에 대한 민감한 내용 역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지속적인 갈등 요소

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주4·3특별법 개정과 최근 이뤄진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여러가지 인사문제 및 청문회 무용론 등도 입방아에 자주 올랐다. 원지사의 최근 대권행보와 맞물려 단행한 인문론, 그리고 앞서 이뤄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검찰의 최근 기소 건에 대한 말들이 오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차례 내습한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와 올해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는 갈금 가격 추이 여부에도 관심이 컸다. 매년 되풀이 되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제주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관광업계의 코로나19에 따른 타격과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의한 경기 부양책 마련 등도 이번 추석 연휴의 화두로 떠올랐다.

아울러 제주시 신규 면세점 입점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제주도의 탄력적인 경제정책 방향 제시, 정부의 한국관 뉴딜정책에 동반할 수 있는 제주만의 경쟁력 확보 등의 요구도 여러 나왔다. 아직 1년8개월가량 남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의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는 물론 각 지역 의원들에 대한 평도 일부 거론됐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지난 달 26일부터 시작된 올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제주국제공항 출발대합실에는 '추강스'를 마치고 다른 지방으로 돌아가는 이들과 귀성객들이 몰려들어 붐비고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종식됐으면...”

올 추석연휴기간 28만명 찾아 3~4일 8만여명 제주 빠져나가

“내년 설날에 또 내려올게 엄마.” “그래,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아들. 도착하면 연락하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제주국제공항 대합실에는 귀성객과 이들을 배웅하려는 가족, 그리고 관광객들로 오전부터 북적였다. 많은 이들의 양손에는 제주 특산품 등이 들려 있었으며, 일부 귀성객들은 국내선 탑승장 앞에서 가족들과 포옹을 한 뒤 다음을 기약하며 탑승장 안으로 들어섰다.

지난해 추석 이후 약 1년 만에 고향을 찾은 강모(31·제주시 삼도1동)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고향에 내려 오는 것이 조금 걱정됐지만, 올해 가족들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해 내려 오게 됐다”며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친구들을 만나는 모임 등에는 나가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들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을 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오랜만에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힐링이 됐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맘 편히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항공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에만 국내선 기준으로 4만1883명이 제주공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일에는 4만5240명이 제주공항 출발편 항공기에 몸을 싣는 등 이틀간 8만7123명이 국내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9일간 이어진 올해 추석 연휴에는 28만명에 가까운 관광객과 귀성객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3만349명이 제주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3일까지 총 25만3326명이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한 4일에는 2만5000여명이 제주를 찾으면서 최대 9일간 이어진 올해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3만1000여명이 제주에서 명절을 보내거나 관광을 즐겼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 공무원 9급→5급승진 평균 23년7개월

전국평균 25년4개월보다 빨라 세종시 17년6개월로 최단기간

제주 지방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23년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일반

직 기준)' 자료에 따르면, 9급에서 5급 승진까지 세종시가 17년 6개월로 가장 빨랐고, 광주광역시 21년, 부산광역시 22년 2개월, 강원도 23년 5개월, 제주가 23년 7개월로 빠르게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28년 3개월로 승진 소요 기간이 가장 길었고, 충남 27년 1개월, 경남 27년, 경기도 26년 8개월로 5급 승진까지 소요 기간이 길었다. 제주는 2019년 기준 9급에서 8급

은 2년 1개월, 8급에서 7급은 3년 3개월, 7급에서 6급은 7년 2개월, 6급에서 5급은 11년 1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지방직 9급 공무원이 합격 후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린 기간은 2015년 29년에서 2016년 28년, 2017년 27년 6개월, 2018년 26년 6개월, 2019년 25년 4개월로 점차 단축됐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한다

2022년까지 계획수립 용역

제주지역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환경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가치보전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 10월까지 환경

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3차년 사업으로 총 18억 4500만원이 투입된다.

도는 올해는 도내 환경자원, 보존자원, 환경자원총량, 도시생태현황 등을 조사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한다.

내년에는 환경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 등급화, 총량 설정 등 환경자원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2022년에는 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총량관리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편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위한 “영상감시 솔루션 전문기업” (주)월드씨앤에스

특허 제 10-2125985 호 클린하우스 융합감시제어기 CMC-200



사각지대 감시

클린하우스 내 외부 인체 감지 시 LED점멸과 안내방송, 카메라 회전으로 주의를 줌으로서 불법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여 깨끗한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클린하우스 관리로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안내방송

재활용품 요일 별 배출안내, 쓰레기 배출시간 안내, 불법투기 방지 안내, 공지사항 등 다양한 메시지 전달에 활용됩니다. 특히 재활용품 요일 별 배출안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관광객들에 대한 배출정보 안내 및 계도로 청결한 클린하우스를 유지 함으로서 관광 제주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 시킵니다. 야간 방송은 주간 대비 작은 음량으로 자동 조절되어 방송됩니다.

클린하우스 CCTV, 방송 시스템의 시공 표준을 만듭니다.

재활용품 요일 별 배출안내

오늘은 수요일!
페트병 등 플라스틱류를 배출하는 날입니다.



클린하우스 좌측 사각지대 촬영

여기는 음식물 수거함이 설치된 곳입니다. 설치된 수거함 외의 쓰레기 투기는 불법 투기로 녹화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우측 사각지대 촬영

여기는 의류 수거함이 설치된 곳입니다. 설치된 수거함 외의 쓰레기 투기는 불법 투기로 녹화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공지 사항 및 이용 시간 안내

쓰레기 배출 가능 시간은 금일 오후 3시부터 내일 새벽 4시까지이며 음식물쓰레기는 24시간 배출이 가능합니다.

